

금가루로 탄생한 화엄경 금니(金泥)사경



지난 6월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대구 문화예술회관 2층에서는 아주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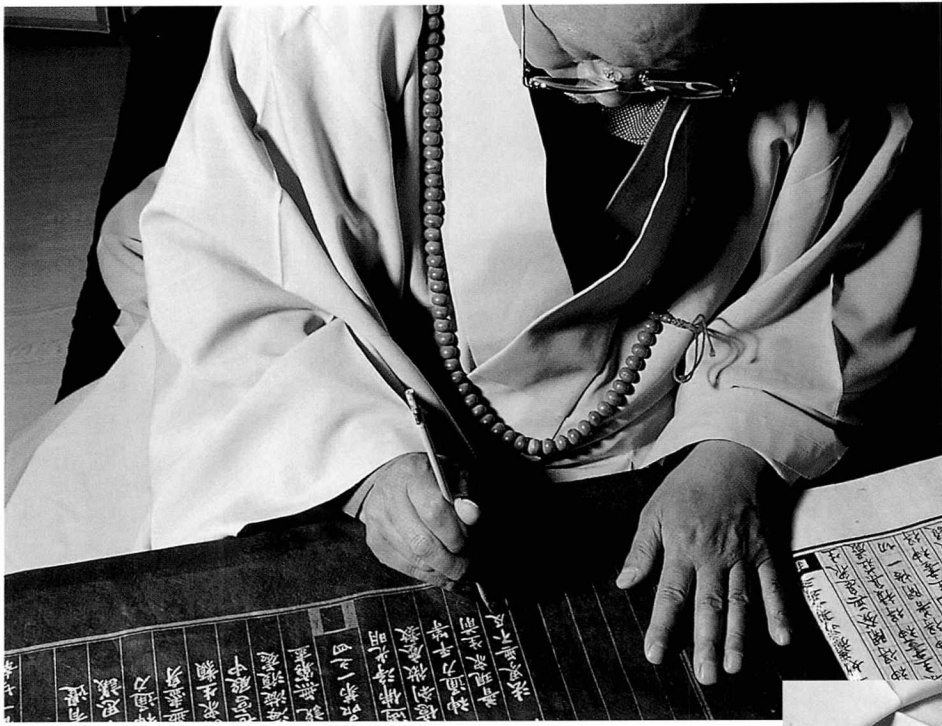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를 이룬 뒤에 깨달음을 설했다는 대승불교 최고의 경전인 화엄경’ 60만자를 금가루로 옮겨 적은 원웅(70세) 스님의 ‘화엄경 금니사경’이 전시됐기 때문이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주최로 개최된 이번 전시회는 국내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원웅 스님의 금니사경 작품을 다수 감상할 수 있었다.

화엄경 금니사경 외에도 반야심경과 금강경의 금니사경, 금니 탐다라니, 화엄경 금니 부채, 선시와 묵서 등 원웅 스님의 방대한 작품들이 대거 전시됐기 때문이다. 또한 전시회 기간

동안 원웅 스님은 ‘대방광불 화엄경’이란 글씨를 직접 써서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기도 했다.

특히 이번에 전시된 ‘화엄경 금니사경’은 14~16m 크기 병풍형 책자 형태의 총 80권으로 이뤄졌는데 이를 길게 늘어뜨리면 그 길이가 무려 1300m에 이른다. 이에 원웅 스님이 화엄경 금니 사경을 완성하는데 걸린 시간은 꼬박 10년이 소요됐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사용한 금의 양만 해도 4kg에 달했으며 닳아서 버린 붓만도 60자루가 넘었다고 하니 그 작업의 규모를 가히 짐작할 만하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신도들이 이 작업에 사용된 금을 모두 지원했다는 점이다.



제작 기간 10년 60만자 1300m

사경...통일신라 이후 지켜온
불교 수행법

사경은 마음을 집중해 부처님의 경전을 한 자 한 자 베껴 쓰는 것으로 불교가 전래된 통일신라 이래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 초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져온 유래 깊은 불교 수행법 중의 하나이다. 그 중 금니 사경은 곱게 빻은 금가루를 붓끝에 묻혀 옮겨 적는 것을 말한다.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소재 지리산 벽송사 조실로 있는 원응 스님은 1954년 부산 선암사에서 석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이후 전 조계종 중정인 성철 스님을 수발하며 참선 수행에 몰두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러던 중 지난 1961년에 지리산 벽송사에 들어온 원응 스님은 1985년부터 화엄경 금니사경에 몰두하기 시작해 1996년 국내 최초의 화엄경 '금니사경 대작'을 완성하게 된 것이다.

금니사경 ... 원응 스님에 의해
맥 이어져

이번 전시회와 금니사경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고려시대 이후 단절된 국내 불교 전통문화의 하나인 금니사경이 원응 스님으로 인해 다시 맥을 잇게 됐다는 것이다. 작업을 하는 동안 하루 3시간 이상 잠자리에 들지 않는다는 원응

스님은 "한 글자, 한 글자 옮겨 쓸 때마다 그 의미를 새기면서 스스로를 돌아봤다"면서 "사경은 단순히 불경을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유효한 수행 방법의 하나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화엄경 금니사경 전시회는 2000년 6월 부산 국제신문사에서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된 이후 2001년 2월에는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가 이뤄졌으며 이번이 3번째 전시회다.

금니사경 전시회는 앞서 열린 두 번의 전시회와 마찬가지로 작품을 판매하지 않는 순수 작품 감상의 장으로 준비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조갑준 기자)